오대산국립공원의

또 다른 물

오대산국립공원은 앞서 언급한 우통수, 금강연의 물이 모여 흐르는 오대천 외에 여러 지역에 흐르는 하천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이 하천들은 우리나라 중·북부지방의 수많은 생명의 근원이 되고 있습니다.

동해로 흘러가는 물

부연동 계곡

오대산국립공원 두로봉에서 발원한 물은 부연동계곡, 법수치리계곡, 어성전계곡을 지나 양양읍과 손양면에서 동해로 흘러나갑니다. 강릉시 연곡면 삼산리의 부연동은 오지 중 오지입니다. 2021년 현재까지도 좁은 시멘트 포장 구간이 많고, 교행이 불가한 구간이 있어 찾아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곳 부연동은 멸종위기야생생물 Ⅰ급인 산양을 보호하기 위해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부연동 계곡

연곡천

오대산국립공원의 동대산(1,433.5m)과 노인봉(1,338m) 사이의 진고개에서 발원하여 강릉시 연곡면 퇴곡리에서 소금강계곡의 물을 받아 동해로 흘러나갑니다. '연곡천'이란 이름은「신증동국여지승람」에 하천이 바다와 만나는 지역을 연곡현, 연곡포, 연곡진이라고 하고 있어 지역명과 관련 되어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연곡천의 지류인 소금강계곡은 협곡을 따라 폭포, 기암절벽이 많아 오대산국립공원의 최고 경관을 자랑합니다.



연곡천

남한강으로 흘러가는 물

송천

오대산국립공원 황병산(1,407m)과 매봉(1,173m) 사이에서 발원하여 정선군 여량면 여량리에서 동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송천과 동강이 만나는 곳을 "아우라지"라고 부르며, 정선 아리랑의 고향이 이곳입니다.



송천

속사천

오대산국립공원 계방산(1,577m) 노동계곡에서 발원하여 용평면 백옥포리에서 평창강으로 흘러 들어갑니다. 계방산은 2011년 1월 오대산국립공원에 편입되었습니다. 설경이 빼어난 계방산이지만 노동계곡에서 만나는 울창한 계곡 경관은 일 년 내내 빼어나서 계절마다 탐방하기에 좋습니다.



노동계곡

북한강으로 흘러가는 물

내린천

강원도 홍천군 내면 광원리 을수골에서 발원하여 강원도 인제군 인제읍 합강리에서 소양강으로 합류하는 소양강 지류입니다. 내린천 발원지 표지석이 있는 을수골에는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인 열목어를 보호하기 위한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이 있습니다. 특별보호구역은 자연공원법에 근거하여 위협요인으로 보호관리가 필요한 법적보호종의 서식지를 의미하며, 서식종의 보호를 위해 출입 금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을수골

계방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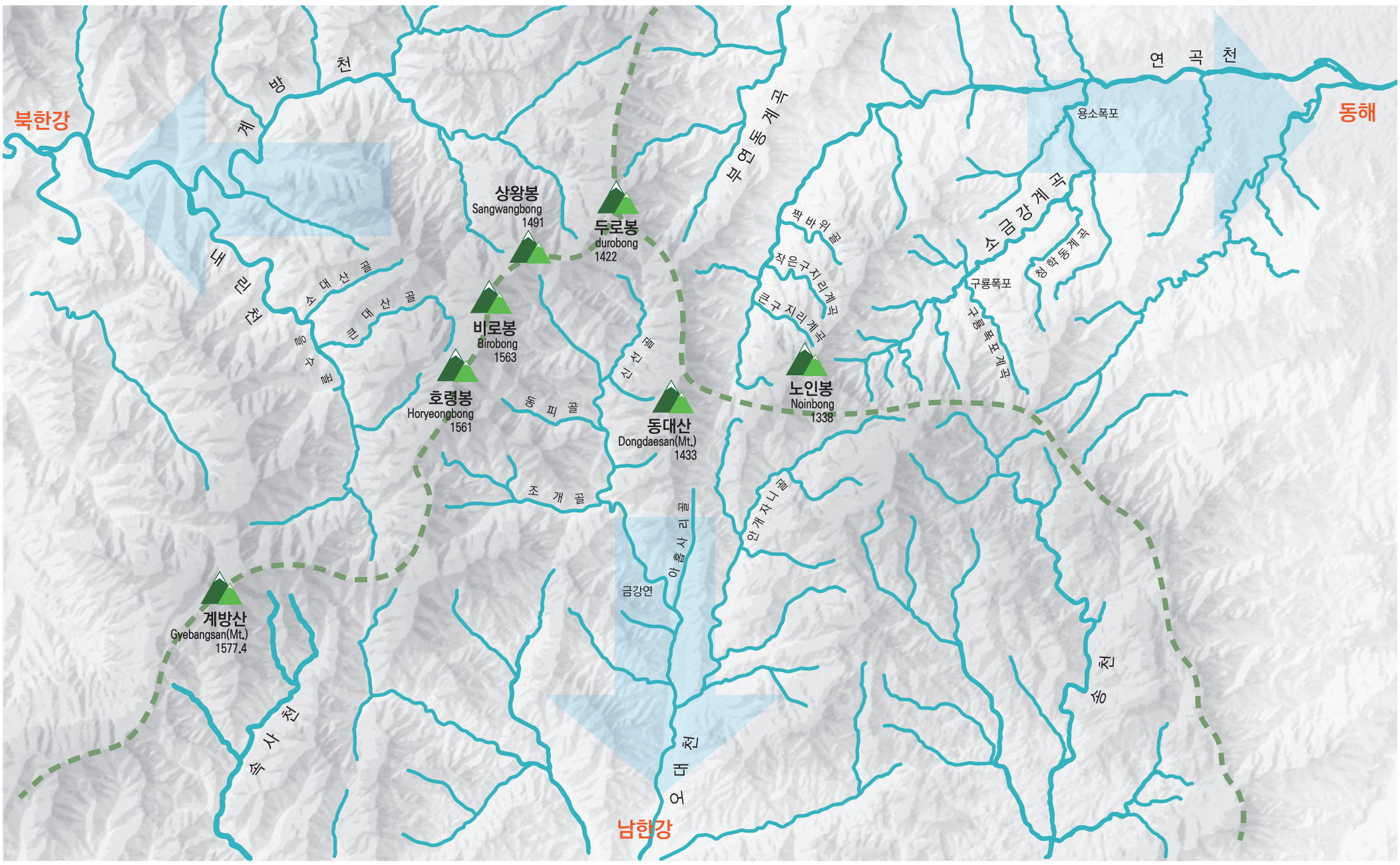
오대산국립공원 두로봉, 상황봉(1,491m) 사이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강원도 홍천군 내면 명개리를 지나 내면 광원리에서 내린천과 만납니다. 계방천 역시 을수골 내린천처럼 열목어 서식지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계방천

국립공원과 물

물은 모든 생명의 시작이며, 삶의 터전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여러 산업에 필요한 경제 자원으로써의 가치가 있습니다. 최근에는 여행과 레저·문화공간으로도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이런 물의 가치를 오늘날 우리는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조금씩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아주 큰 가뭄이 아닌 이상 적당한 수위를 유지하던 우리나라 곳곳의 저수지들이 최근엔 작은 가뭄에도 바닥을 보이는 경우가 잦아 여러 사회적 문제 (농업·산업용수 부족, 수질오염 등)가 발생하고, 세계 곳곳에서도 물 부족으로 오염된 식수를 마실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이 있어 인류는 물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귀한 것을 아끼지 않고 낭비할 때 흔히 "물 쓰듯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나 가까운 미래에 이 표현은 옛사람들이 썼던 기록으로만 남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물이 어느 시기보다 중요한 지금 국립공원의 존재 이유가 더 주목받을 것입니다. 오대산국립공원과 대다수 국립공원은 여러 하천의 출발점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문헌 〈자현, 2017, 오대산을 가다, 조계종출판사〉 〈권혁진 외 1명, 2019, 오대산의 인문학.도서출판 산책〉

제작 담당:자연환경해설사 염원준/감수:국립국어원 교수 김주미